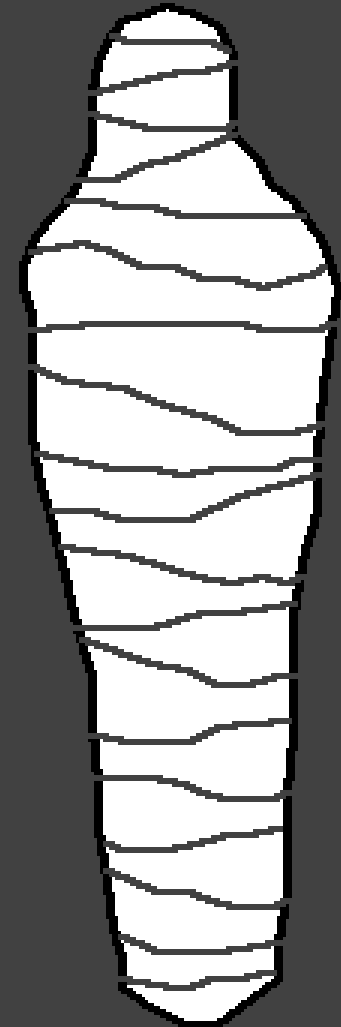


#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나사로와  
예수님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http://www.M1914.org)

©2015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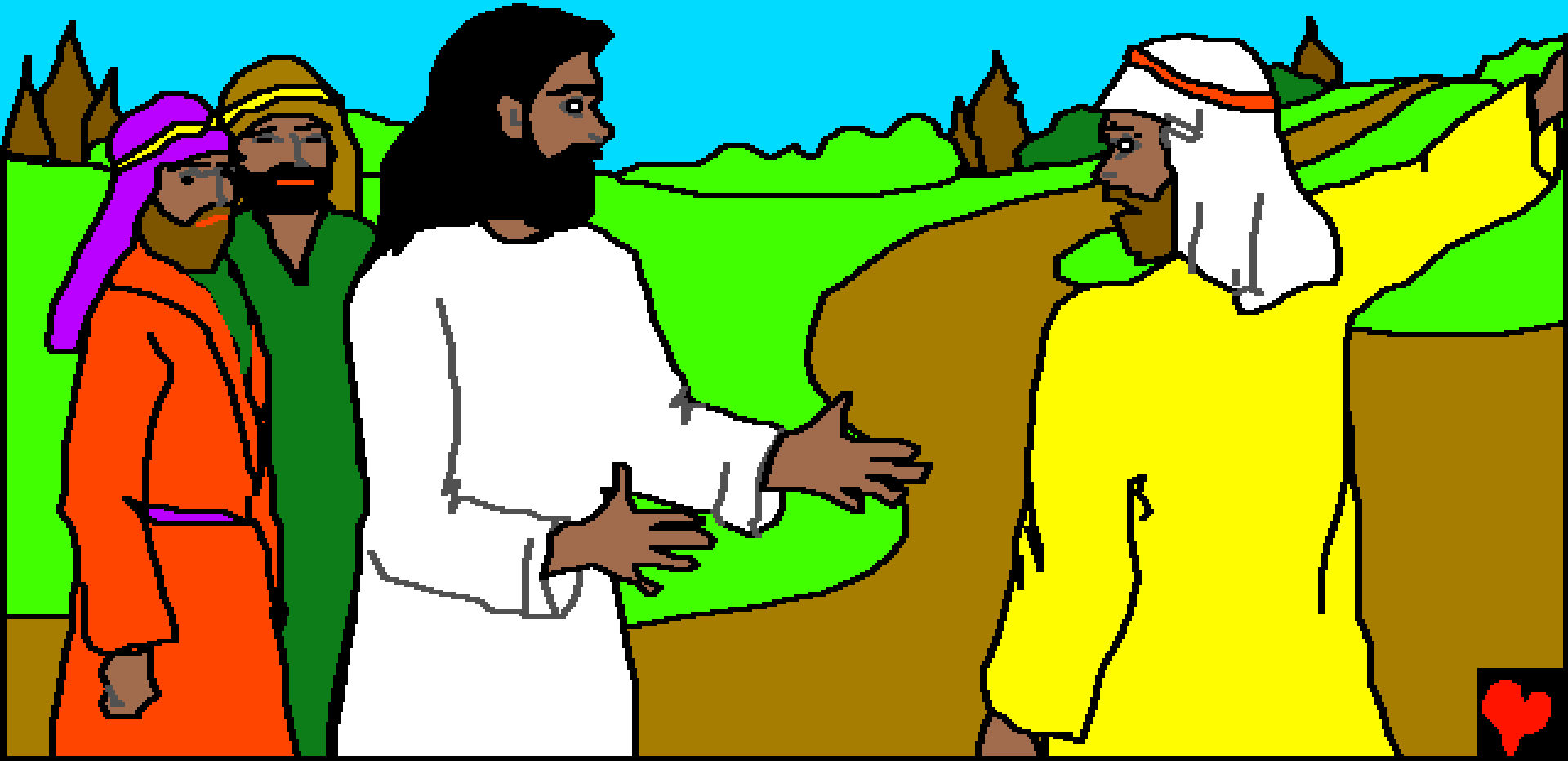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아주 많이 아파서 걱정에  
잠겨 있었어요. 이러다가  
오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으러  
보냈어요. 이 가정을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내신 후에 베다니로 떠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나사로가 죽었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을 기뻐한다.” 제자들은 고개를 가우뚱했지요. 과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어요. 그의 시체는  
천으로 감겨진 채  
동굴같은 무덤에  
있었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할 것을 압니다.” 라고 답했지요. 그녀는 나사로를 다시 보기 위해서는 세상 끝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엔 다른 뜻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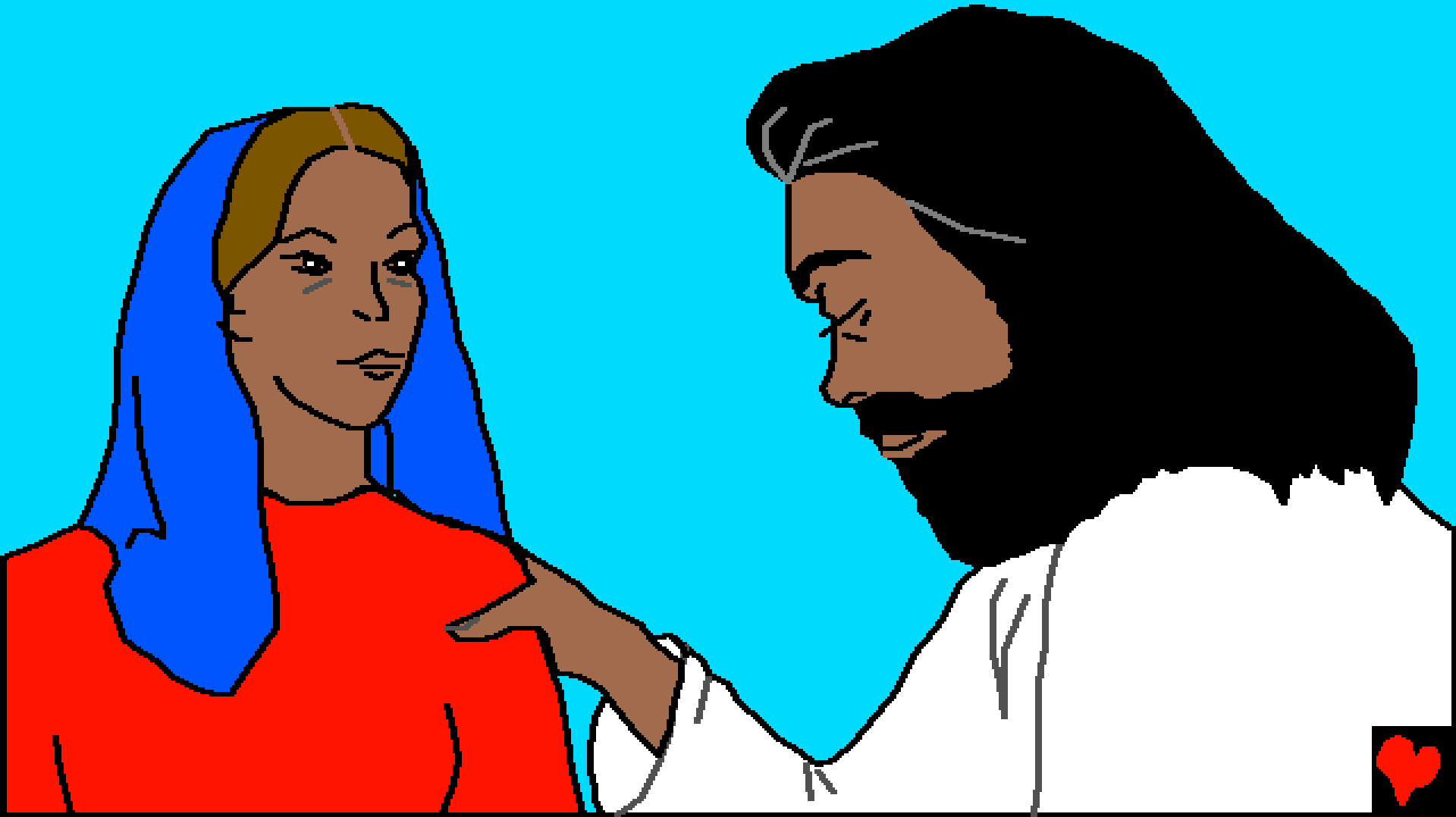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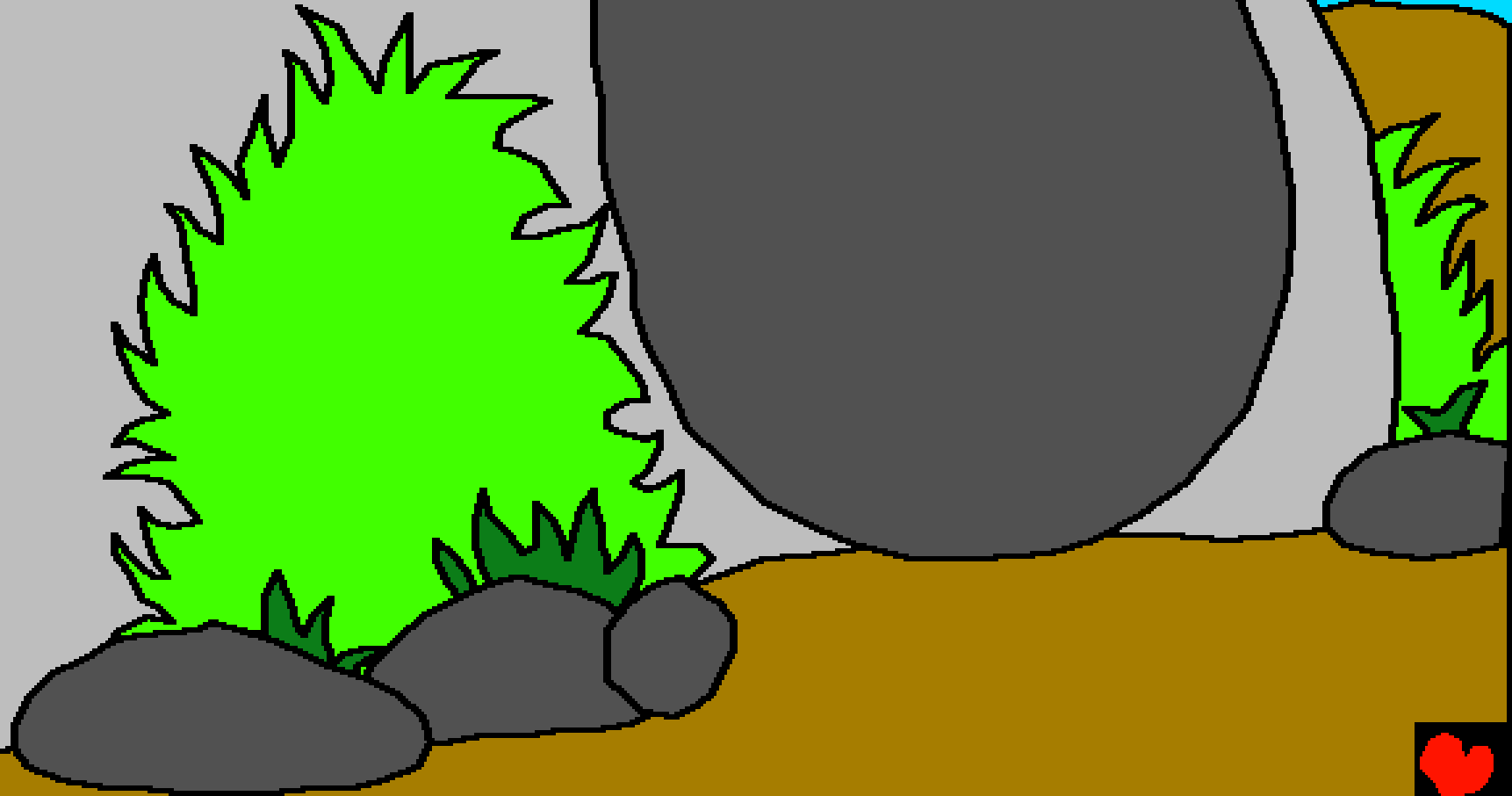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는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하였지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어요. 여동생  
마리아와 친구들은 울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무덤으로  
가셨어요. 커다란 돌로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음을  
알게 하려 함이었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서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까요?





정말  
나사로가  
천으로  
쌌던 그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풀어 주어 다니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겠지요.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파인 성전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얼마동안 다른 동네에 거하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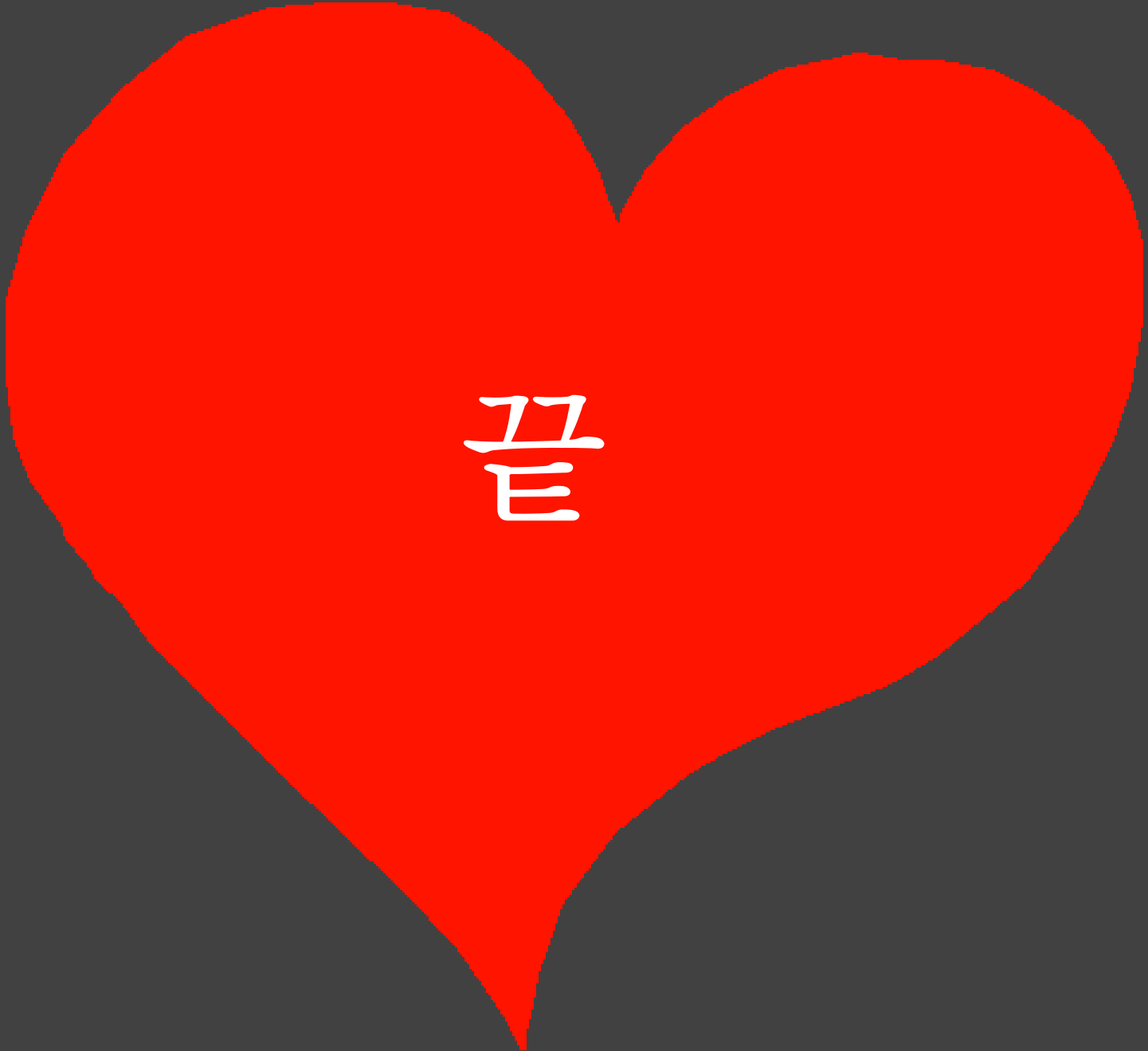
나사로와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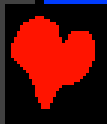
요한복음 11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